



2026년 후불제 R&D 사업

당신의
혁신파트너
—
KIMM

KIMM-NEXT 50
앞으로 50년, 기업과 함께하는 미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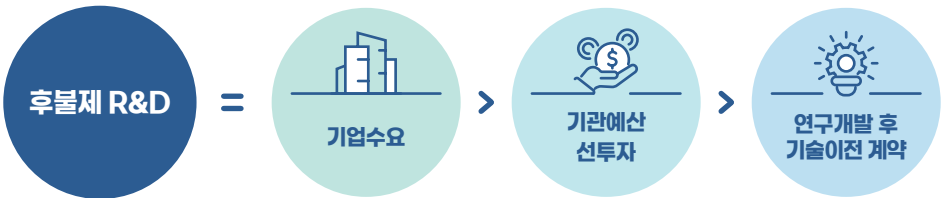
NEXT : New Era eXploration for Tomorrow

후불제 R&D 사업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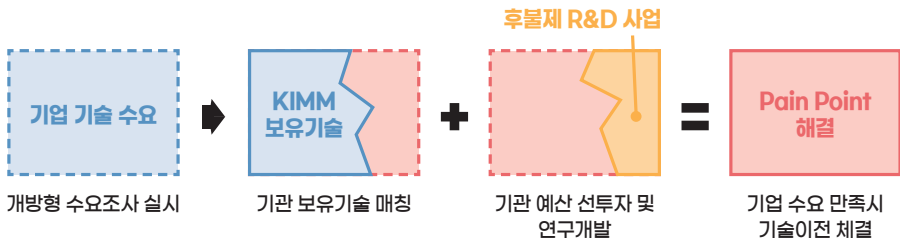
“후불제 R&D 사업”은

기업 대상 개방형 공모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발굴하고,
가장 적합한 전문가 및 보유기술을 매칭한 후,
기관 자체 예산을 선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,
기업수요 만족시 기술료계약을 체결하는
기계연 고유의 기업친화형 R&D 사업입니다.



1 사업 개념

- 개방형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수요 발굴 후, 기관 보유 기술 및 연구자 매칭
→ 기업의 수요반영 체계 강화
- 자체 예산을 활용한 기관 선투자 연구개발
→ 기업 재정 부담 완화 및 참여 활성화
- 연구 목표 달성 시 기업의 기술이전 의무화
→ 기술료 수입 재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 사업 프로세스 구축
- 체계적인 연구관리 및 사업화 지원 실시로 성공률 제고
→ 기업-연구책임자-기계연 공동 게이트키퍼링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사업 리스크 저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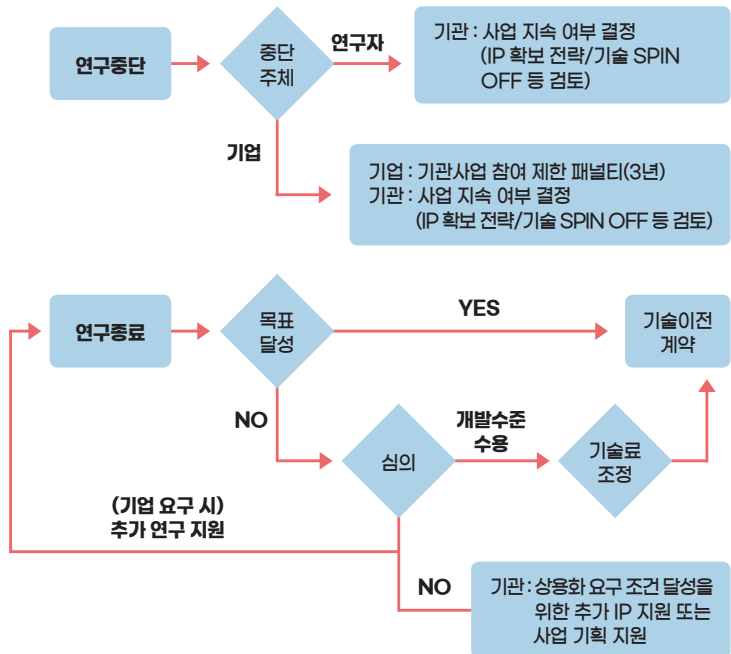
2 사업 개요

- 사업분야: 기관의 중점 추진 연구 분야
- 사업기간: 원칙적으로 1년 이내
(선정평가 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 조정 가능)
- 사업예산: 과제당 2억/년 이내(직접비 기준)
- 투자재원: 기계연 자체 예산

3 사업 운영 관리

(기술이전) 기술료 협약 기준은 없으며, 사업 선정시 협약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평가할 예정임

(출구전략) 사업 특성상 다양한 경우에 따른 출구 전략 마련



수요조사 (~'26.6월)



- **수요조사 실시**
 - 관련 기업 네트워크 활용(K-Partners, 패밀리기업 등)
 - 전문기관 활용(KOITA, 상공회의소, 융합혁신지원단 등)
- **수요조사서 제출**
 - 기업정보, 기술 개발 필요성 및 개발 대상
 - 소요기간 및 예산 등

사전검토 (~'26.7월)



- **수요조사서 검토 및 연구자 매칭**
 -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매칭
 - 전문가-수요기업 협의를 통한 기술 구체화

사업공고 및 신청 (~'26.8월)



- **사업공고**
 -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고 실시
 - 개방형 외부 공고 실시
- **사업신청**
 - 연구책임자 : 기관 매칭 연구자
 - 제출서류 :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

사업선정 및 협약 (~'26.9월)



- **사업선정**
 - 고객수요부합성, 보유기술의 우수성
 - 개발계획의 적정성, 기술사업화 효과
- **협약체결**
 - 사업목표 및 상호 책임과 역할 합의
 - 기술이전 협약 및 연구진행 상황에 따른 상호 출구 전략 포함

연구수행 및 사업화 (~'26.9월~)



- **연구개발 수행**
 - 연구자 자율성 중심의 기술개발 수행
 - 진행단계별 체계적인 게이트키퍼링 실시
- **기술이전 및 사업화**
 - 사업종료 시, 기술이전 실시
 -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

Q

후불제 R&D 사업의
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?

A

후불제 R&D는 선 기술개발 후, 개발비를 징수하는 새로운 R&D 프로그램입니다. 기업의 개발 요구조건을 기준으로,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.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, 연구가 끝난 후 결과물이 기업의 요구에 맞을 때만 비용을 지불합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.

Q

기술료 협약 기준은
어떻게 되나요?

A

사업신청 및 선정 후 협약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기술료 협약을 하게 됩니다. 확정된 기준은 없으나 선정평가 지표에 기술료 협약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기술가치에 기반한 기술료 협약비율이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.

Q

연구개발 결과가
기업의 요구에 맞지
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

상호 합의한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, 요구 수준 미달 정도에 따라 상호 조정 협의를 하게 됩니다. 이 경우 기술료 조정, 추가 연구 지원, 기술개발 중지 및 기술이전 미집행 등 다양한 형태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Q

기술사업화 관점에서
연구개발 목표의 범위와
책임은 어떻게 되나요?

A

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증 등의 상용화 과정도 필요한데다. 하지만, 기계연은 R&D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기술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술이전 후 인증 획득 등의 역할은 기업의 책임입니다. 또한, 기계연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후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Q

기술이전 계약은
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A

기술개발 목표가 달성되면 사업 종료 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고,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.